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KRX 발전 방향(안)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
김 기 경

2023.4.17(월)

KRX 한국거래소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KRX 발전 방안

Contents

- I. KRX 현황
- II. 그간의 글로벌화 노력
- III. 최근 시장동향 및 KRX 현주소
- IV.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KRX 발전 로드맵
- V. 맺음말

※ 본 발표자료는 한국거래소의 자체 검토 자료로서 확정된 사안은 아님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KRX 발전 방안

Contents



KRX 현황

KRX는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및 일반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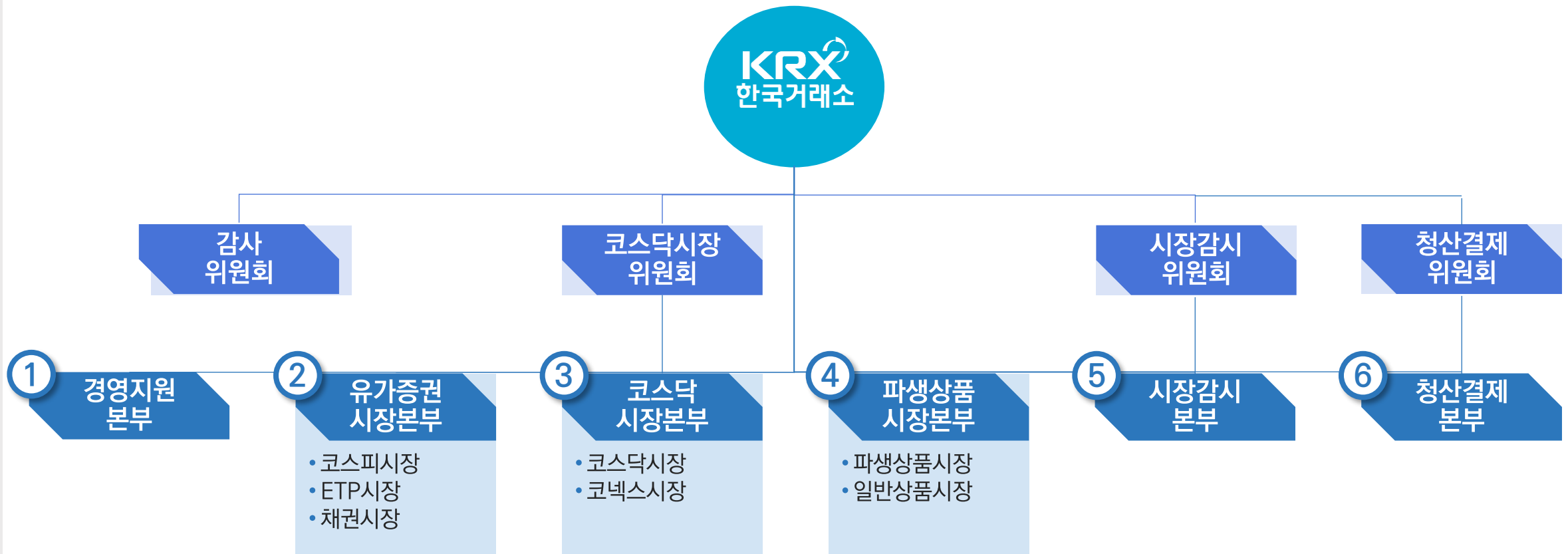
- 증권시장 : 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ETP시장, 채권시장 등
- 파생상품시장 : 선물시장, 옵션시장
- 일반상품시장 : 탄소배출권시장, 금시장 등

구분	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ETP시장	채권시장	파생상품시장	일반상품시장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시장 - 신주인수증서시장 - 신주인수증권시장 - 수익증권시장 	(코스닥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시장 - 신주인수증서시장 - 신주인수증권시장 (코넥스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TF 시장 - ETN 시장 - ELW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전문유통시장 - 소액채권시장 - 일반채권시장 - 환매채(Repo)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가지수선물시장 - 주가지수옵션시장 - 주식선물시장 - 주식옵션시장 - 금리선물시장 - 통화선물시장 - 통화옵션시장 - 일반상품선물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배출권시장 - 금시장 - 석유시장
거래대금 (일평균)	9.0조원	6.9조원	3.0조원	3.9조원	62.0조원	445억원
시가총액	1,767조원	316조원	88조원	2,353조원 (상장잔액)	-	-

※ (거래대금) '22년 기준 / (시가총액) '22년말 기준

KRX는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 시장 운영을 위해 '6개 본부' 체제로 구성

- 유가/코스닥/파생상품시장 본부는 각 시장을 관리·운영
- 시장감시본부는 시장감시·감리·심리 업무, 청산결제본부는 청산·결제 업무 수행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KRX 발전 방안

Contents



그간의 글로벌화 노력

글로벌 투자 니즈 등을 반영한 다양한 신시장 개설 및 신상품 개발

- 코스피200 선물·옵션, ETF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시장 개설·운영 중
- EUREX 등 글로벌 거래소와 연계한 야간시장도 개설(자국상품 활용 아시아 최초)



1956

- 설립

1996

- 코스닥시장
개설

1996

- 코스피200
선물시장 개설

1997

- 코스피200
옵션시장 개설

1999

- 국채 현물/
선물시장 개설

2002

- ETF시장 개설

2014

- 금시장 개설

2013

- 코넥스시장
개설

2010

- EUREX
연계시장 개설

2009

- CME
연계시장 개설

2008

- 주식선물
시장 개설

2002

- 주식옵션
시장 개설

2014

- ETN시장
개설

2015

- 배출권시장
개설

2015

- mini 선물·
옵션 상장

2017

- ETF선물
상장

2018

- KRX300
선물·ETF 상장

2019

- 위클리옵션
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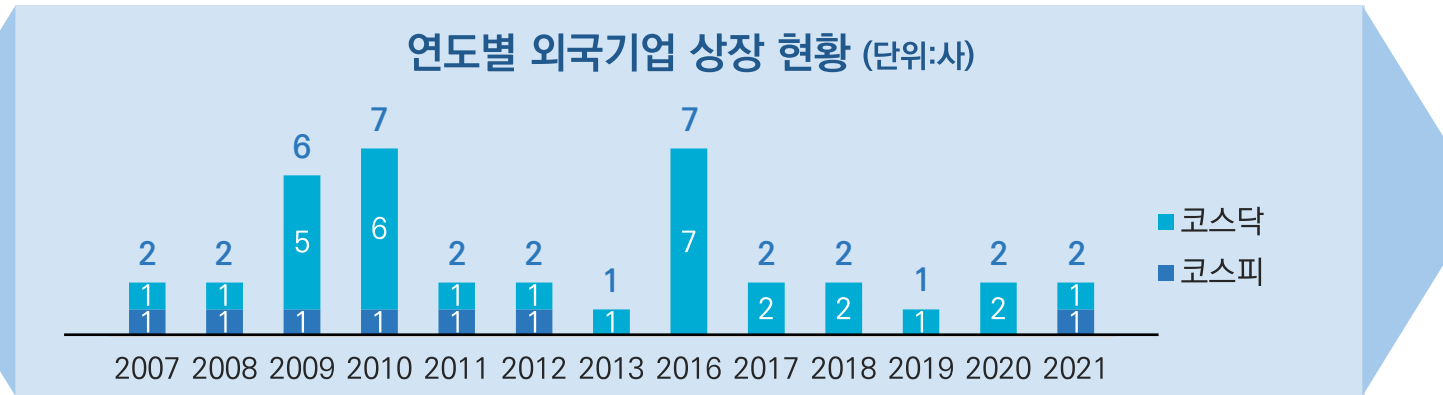
2021

- 청산결제본부
출범

2 외국기업 상장유치 및 증시인프라 선진화

글로벌 시장 도약을 위한 외국기업 상장 유치

‘07.8월
외국기업
최초상장 이후
총 38사 상장



‘23.3월 현재
코스피 2사
코스닥 20사
22사 상장 중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증시제도·인프라 선진화

매매제도 개선

- 변동성완화장치(VI) 도입
- 가격제한폭 확대(15%→30%)
- 증권시장 착오매매 구제 제도 도입
- 호가 일괄취소(Kill Switch) 제도 도입
- 시장조성자제도(Market Maker) 도입
- 외국인 옴니버스 계좌 도입 등

상장·공시제도 개선

-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 ESG공시 제도 도입
- 포괄주의 공시제도 도입
- SPAC상장 제도 도입
- 기술특례 상장제도 도입
- 기업 해명공시 제도 도입 등

증시인프라 선진화

- 배당절차 개선(先 배당액, 後 기준일 확정)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 옴니버스 계좌 활성화
- 장외 파생상품 청산서비스 시행
- TR(거래정보저장소) 업무 개시
- 외국인 장외거래 유연화 등

3 글로벌 투자자 유치 노력 및 해외사업 진출

해외 유동성 흡수를 위한 글로벌 투자자 유치 노력

글로벌 ETP 컨퍼런스

- '10년 이후 총 12회 개최
- 매회 약 700명 이상 투자자 참여



글로벌 IR·증시로드쇼

- '00년부터 글로벌 IR 개최
- 한국 증시 및 상장법인 홍보



FIA 파생상품 엑스포

- '05년 이후 FIA엑스포 참석
- 파생상품시장 해외 투자자 유치



KRX 해외사업 진출 및 금융한류 선도



8개국 증시 IT시스템 수출

- 라오스 증시 개설('11)
- 캄보디아 증시 개설('12)
- 말레이시아('08), 필리핀('12)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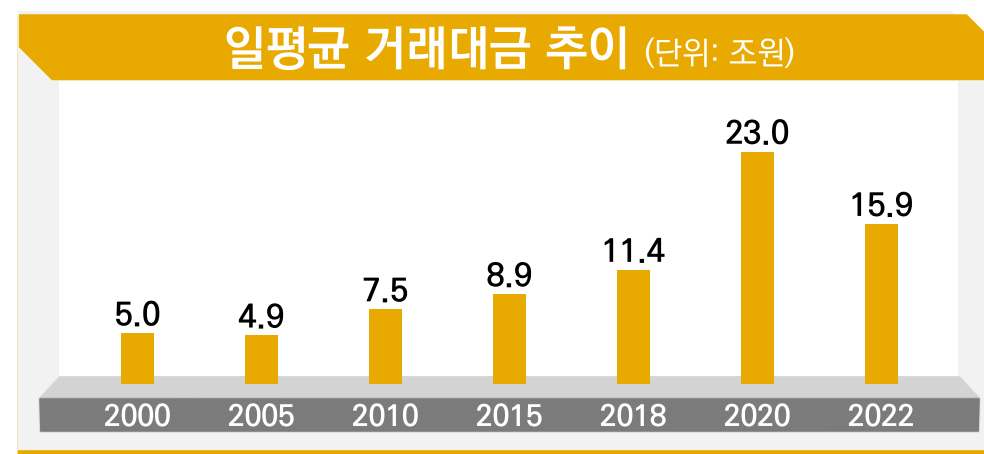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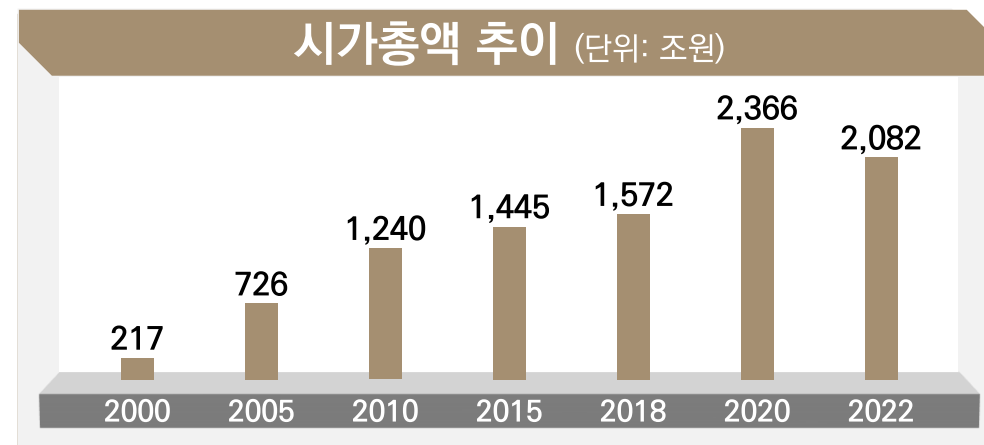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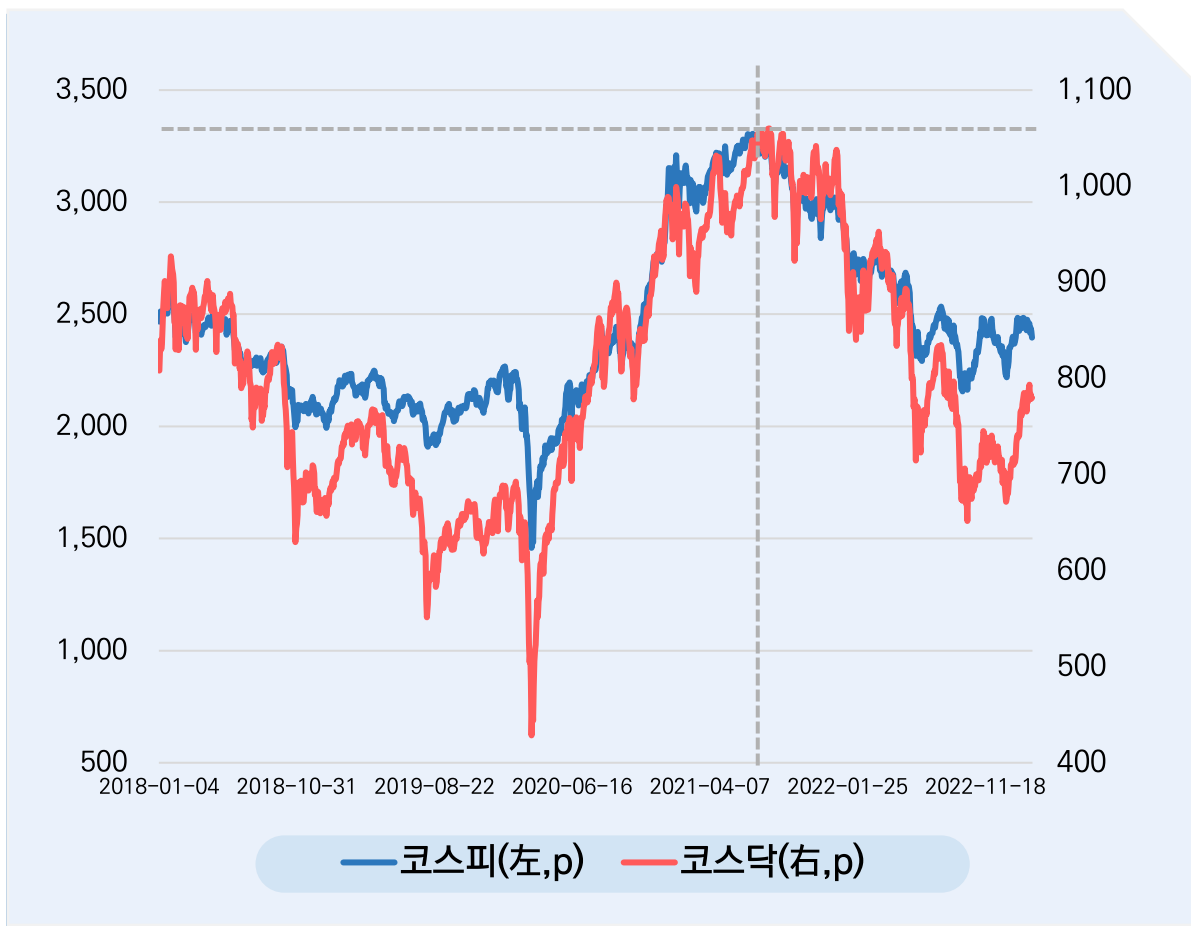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KRX 발전 방안

Contents



최근 시장동향 및 KRX 현주소

'21년 코스피3,000시대 개막 이후, 대내외 변수 등으로 **조정국면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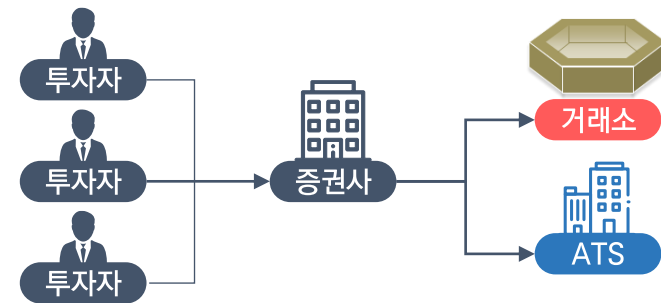


새로운 증시 모멘텀 확보 및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

1) 최근 국내외 자본시장 간 경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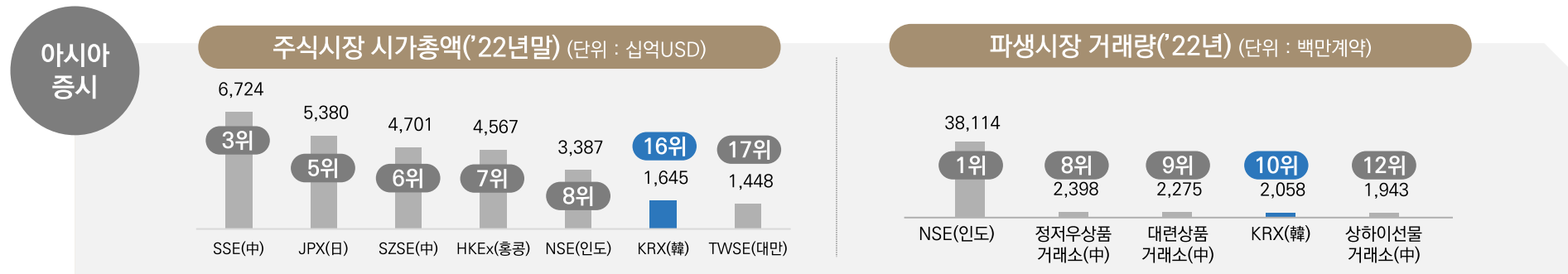
[국내] ATS 설립을 계기로 증권시장의 경쟁체제 본격 전환

- 2023년부터 ATS 설립 가시화
 - 금융당국은 3월 ATS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 거래소-ATS간 주식거래 투자유치를 위한 경쟁 불가피
 - ATS는 거래소시장 전체의 15%, 종목별 30% 한도까지 거래 가능
- 공정한 경쟁 하에 투자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서비스 혁신 要



[국외] 인프라 기술 발전에 따른 증권시장간 국경 없는 경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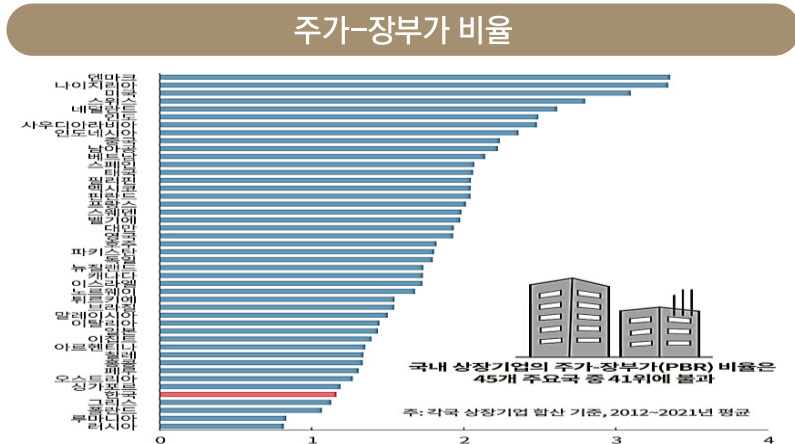
-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직구 증가 추이
- ‘쿠팡’의 미국 상장 사례로 대두된 국내기업의 해외상장 부각
- 아시아 경쟁시장인 인도·중국은 한국을 이미 추월하였고, 대만도 최근 성장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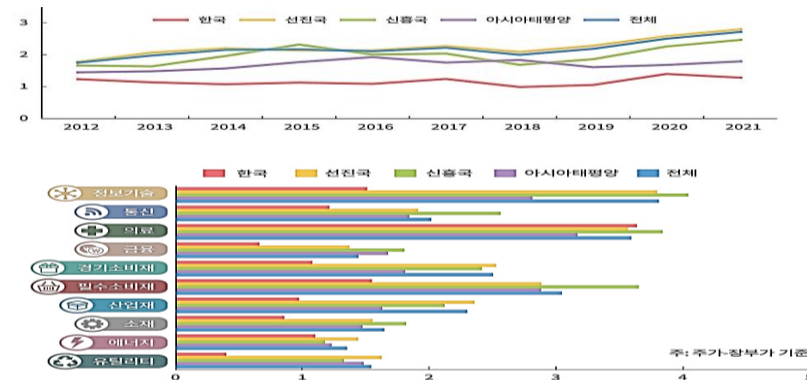
2) 최근까지 '코리아디스카운트' 이슈 지속

한국 증시의 PBR(주가-장부가 비율)은 1.2로, **45개 주요국 중 41위** 수준 (자본연구, '23.2월)

- 한국 PBR 1.2 ↔ 선진국 2.2, 신흥국 2.0, 아시아태평양 1.7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시기에 관계없이, 의료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관찰



※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3) '16년 이후 외국기업 상장 둔화

외국기업 상장실적은 '16년 이후 **크게 감소**하여 사실상 정체수준 (단위: 사)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코스피	0	0	0	0	0	0	0	0	1	0
코스닥	1	0	0	7	2	2	1	2	1	0
합계	1	0	0	7	2	2	1	2	2	0

4) 거래소 산업의 새로운 경쟁시대 진입

블록체인기술 기반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자산 출현

토큰증권

- 분산원장에 기반하여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 지급결제형 토큰 및 유틸리티형 토큰과 구분)
-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유형(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등)에 기초하여 수익 상품을 제공하는 혁신성 부각
- 토큰증권발행(STO)이 사업자금 조달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기존의 증권 발행과 동일한 규제 준수 필요

비증권형 자산

-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가상자산(現 특금법상 정의)은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시장질서 확립 전망

해외거래소의 Value Chain 확장을 통한 수익기반 다각화

파생상품

- CME 20년물 미국 국채선물 상장('22.3)
- CBOE 마이크로 지수옵션 상장('22.3)

청산결제

- 런던거래소 장외파생 거래축약 업체 Quantile 인수('22.1)

혁신기업 상장 및 ESG 투자유치를 위한 경쟁 치열

혁신기업
상장 등

- Euronext는 'Euronext Tech Leaders' 세그먼트 신설 계획 발표('22.6)
- Nasdaq은 ESG 공시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 Metrio 인수 발표('22.6)



“글로벌허브 도약을 위해서는 자본시장 경쟁 우위 선점 필요”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KRX 발전 방안

Contents

IV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KRX 발전 로드맵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발전 로드맵

현황 및 문제점

1

Domestic 시장수요에
기반한 투자상품 부족 문제

2

글로벌 투자자의
시장접근 제약요인 다수

3

증시인프라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발전 과제

1

글로벌 대표기업 유치 및
투자상품 확대

- 글로벌 대표기업 유치
- 조각투자형 혁신상품 공급
- 상품라인업 보강
(액티브펀드 상장활성화)

2

글로벌 투자자
시장접근성 제고

- 시장접근성 개선(지수사업자 등 협력)
- 외국인 투자정보 확대
- 외국인 거래편의 제고
(파생시장 거래시간 확대)

3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증시인프라 선진화

- 매매제도 개선
(주문유형 다양화)
- 파생시장 맞춤형 보호체계 도입
- 장외청산대상 상품 확대

글로벌 시장참여자의 다양한 투자 니즈 충족

“글로벌 허브 거래소”로 도약



1 글로벌 대표기업 유치 및 투자상품 확대

1) 글로벌 대표기업 유치

글로벌 대표기업의 상장은 자본시장 글로벌화의 필수적 요소

- 『글로벌 대표기업 상장 → 해외투자자 확대 → 글로벌기업 추가 상장 → ...』의 선순환 가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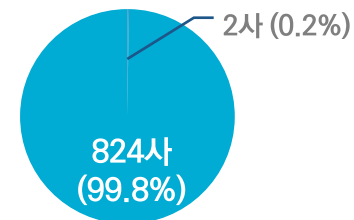
- 상장기업 수 증가에도 여전히 '국내기업' 상장 중심
 - 상장법인 중 국내기업 비중이 99%에 달함
- '22년 이후 외국기업 상장이 전무한 상황
 - 질적인 측면에서도 그간의 외국기업 상장은 중국계 소규모 기업의 상장이 대부분을 차지

글로벌기업 상장 부진원인

- 글로벌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IB의 역량이 아직은 부족하고, 전략적 접근도 미흡
- 우리 증시의 低평가로 인해 글로벌 기업의 한국증시 상장 유인이 부진
-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부정적 인식 형성
 - 그간 외국기업 다수가 코스닥에 상장하였고, 상장 후 퇴출되는 사례 빈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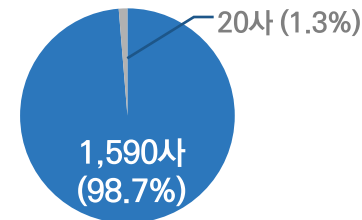
코스피시장

■ 국내기업
■ 외국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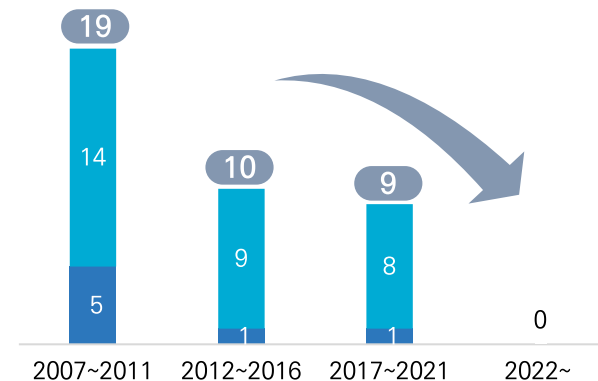
코스닥시장

■ 국내기업
■ 외국기업



외국기업 상장 추이 (단위 : 사)

■ 코스닥 ■ 코스피



1 글로벌 대표기업 유치 및 투자상품 확대

1) 글로벌 대표기업 유치

추진 방향

한국형 IB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글로벌 IB로서 인력 전문성 및 글로벌 네트워크 등 내적 역량 강화 선행 필요
→ 이를 위해, 국내 IB, 법무/회계 법인 등과 글로벌 상장유치 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상장유치 대상 및 우선순위 선정

- 한국 증시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高PER(바이오·IT 등) 업종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의 우량 기업을 Pinpoint Targeting
→ 단계적으로 구미 선진국 우량기업으로 대상 확대



외국기업 진입 부담 완화를 위한 상장제도 개선

- 1차 상장시 **외국회계법인 자격요건 완화** 검토(現 Big4)
- 적격 해외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아도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Fast-Track** 적용 허용



한국증시 매력도 홍보 및 해외 상장유치활동의 지속적 전개 (업계 공동)

- 업계와 공동으로 현지 상장 설명회, 대상기업 방문미팅 등 실시



기대 효과

- 글로벌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해외투자자 참여 확대 및 글로벌 기업 상장 유도

1 글로벌 대표기업 유치 및 투자상품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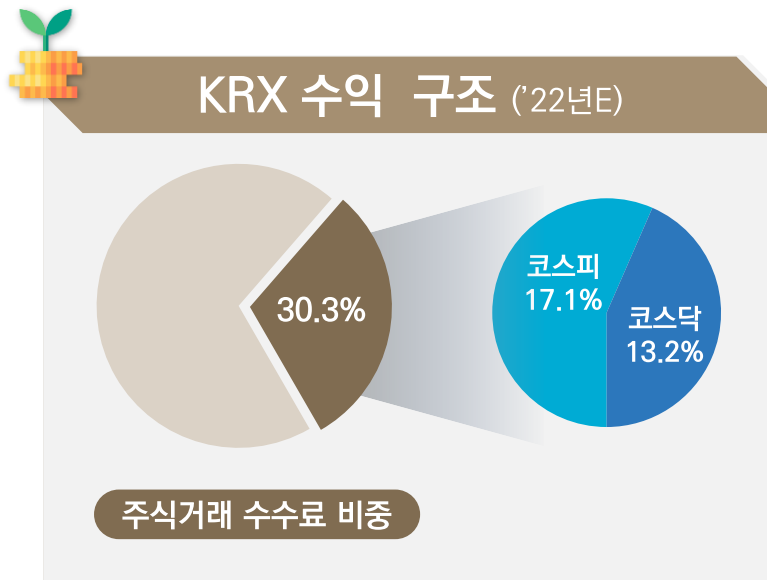
2) 글로벌 투자상품 확대

자본시장의 글로벌 역량 확보는 투자 상품의 경쟁력에서 기인

- 상품은 시장과 투자자가 만나는 “접점”으로서 상품라인업이 곧 시장의 경쟁력

현 황

- 다양한 신시장 개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 전통적 상품(주식거래) 중심의 시장 구조
- 글로벌 거래소는 디지털증권시장, 장외파생 청산 확대 등 사업 영역을 지속적 확장
 - 전통적 상품 위주의 시장 구조로는 KRX와 업계 모두 성장한계 봉착 불가피



주요 거래소 사업 다각화

美ICE(NYSE)	디지털증권 거래플랫폼 투자('22)
英LSE	디지털자산 솔루션 회사 인수('22)
日JPX	디지털 증권시장 개설 예정('25)
臺TAIFEX	금리스왑 청산 개시('22)
EUREX	6개 통화 NDF 청산 개시('22)
英LCH	금리스왑 상품 대상 확대('22)

1 글로벌 대표기업 유치 및 투자상품 확대

2) 글로벌 투자상품 확대

추진 배경

혁신상품 공급
조각투자형 신종증권
시장 개설



상품라인업 보강
액티브펀드
상장 활성화

- 조각투자형 신종증권 장내 상장시장 개설(연내 목표)

- KRX의 기존 증권시장 제도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투자계약증권 및 (비금전신탁)수익증권시장 개설

시장 개설	KRX 디지털사업 전략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큰 증권 발행·유통체계 정비방안』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신종증권 장내 유통시장 개설-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증권이 장내 상장요건을 갖추어 유통될 수 있는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R&D 본격 추진<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행·매매·결제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현• 장기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술 경쟁력 확보

- 액티브 펀드(Active Fund) 상장 활성화

기대 효과

- 전통적 구조에 벗어나 혁신형 신상품 공급 및 상품 확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글로벌 투자자의 시장접근 제약 요인을 개선하여 투자 확대를 유도

- 글로벌 투자자의 증시 참여는 시장 안정성 제고 및 증시 低평가 해소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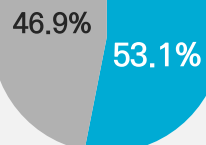
추진 방향

- 그간의 외국인 투자 증가에도, 여전히 ‘개인투자자’ 비중이 과반 이상인 Domestic 구조
- 외부 기관 등은 한국 증시의 문제점 중 하나로 외국인에 대한 ‘시장접근성 문제’를 지적
- 한편, 국내투자자의 해외투자 증가 등 자본시장 간 유동성 확보 경쟁도 점차 고조 양상

개인투자자 매매비중 ('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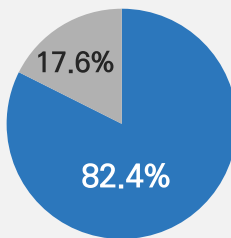
코스피시장

- 개인투자자
- 기관·외국인 등



코스닥시장

- 개인투자자
- 기관·외국인 등



시장접근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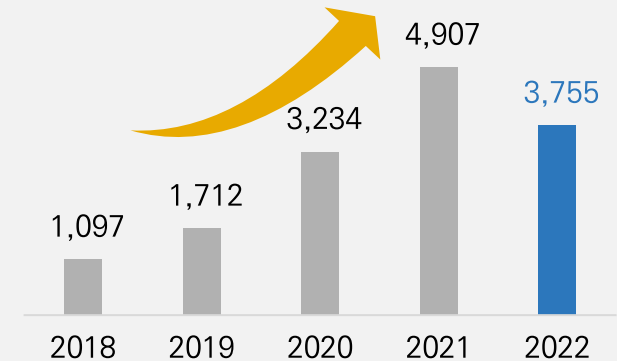
2022 시장 접근성 평가(market accessibility review) - 국가 비교표의 한국 결과

평가 항목	Korea 평가
Openness to foreign ownership	
Investor qualification requirement	++
Foreign ownership limit (FOL) level	++
Foreign room level	+
Equal rights to foreign investors	+
Ease of capital inflows / outflows	
Capital flow restriction level	++
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level	-
Efficiency of the operational framework	
Market entry	
Investor registration & account set up	-
Market organization	
Market regulations	++
Information flow	-
Market infrastructure	
Clearing and Settlement	-
Custody	++
Registry / Depository	++
Trading	++
Transferability	-
Stock lending	++
Short selling	+
Availability of Investment Instruments	-
Stability of institutional framework	+

참고: ++: no issues; +: no major issues, improvements possible; -: improvements needed

※ 출처 : MSCI, 삼성증권

국내투자자 외화증권 거래 규모

국내투자자 외환증권 결제금액(억USD)
(‘18) 1,097 → (‘22) 3,755

※ 출처 : 한국예탁결제원

추진 방향

시장접근성 개선

글로벌 지수사업자 등과의
협력 강화

외국인 투자정보 확대

영문공시 및 ESG 공시
활성화

외국인 거래편의 제고

파생상품시장 거래시간
확대

- 글로벌 지수사업자 협력 강화 등 시장 접근성 개선
 - 선진 전략 등이 반영된 **첨단 지수**를 공동 개발하여, 국내외 증시에 **상장·상품화**
 - 지수사업자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성을 개선**
- 상장법인 영문공시 및 ESG공시 활성화
 - (영문공시)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를 통한 외국인 **친화적 공시 환경 조성**
 ➔ '23.3.29일 공시규정 개정('24년부터 자산10조원 이상 등 코스피기업 영문공시 의무화)
 - (ESG공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ESG 공시 작성 실무지침 개편** 및 **교육 등 공시활성화 지원**
- 파생상품시장 거래시간 단계적 확대 검토(→ 외국인 거래/헤지 편의 제고)
 - ('23년) 파생시장 개장시각 15분 조기화(08:45분 개시) 검토 → ('24년) 파생 **야간시장 개설** 검토

기대 효과

- 외국인 시장접근성 개선 및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선진증시 도약의 발판 마련**

참고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거래환경 개선 노력

✓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시장 접근성 개선(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 공동 추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 現 외국인투자자 ID를 폐지
→ LEI*(법인)·여권번호(개인)로 대체
* Legal Entity Identifier
- 기존 동일 수준의 외국인 투자내역 모니터링 可
 - 외국인 투자자별(투자동향) 식별
 - 외국인 투자자 취득한도 관리
 - 시장감시 모니터링

통합계좌(옴니버스계좌) 활성화

- 통합계좌의 최종투자자는 별도 투자등록 없이 통합계좌 사용
- 증권사는 세부 투자내역 관리
- 투자내역 보고의무 폐지
- 사후관리 체계 마련(필요시 내역 요청)

* 통합계좌(Omnibus Account) :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계좌에서 통합
처리(주문, 결제)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계좌

외국인 장외거래 유연화

- 장외거래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거래 편의성 증대

현행

스톡옵션, 상속, 증여,
CB·BW 행사 등

+

허용범위 확대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
예) 실질적 소유자 변경이
없는 펀드합병 등

- 허용대상거래 신고수리 증빙 간소화

✓ '깜깜이' 배당지급 관행 개선을 통한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고 ⇒ 12월 결산법인 28.5%가 **배당절차 개선**(정관 정비 完) * '23.3.29일 현재

현행

先 배당기준일, 後 배당액 확정

최종 배당금이 확정되지 않은 채 주식거래

배당기준일
(배당 주주확정)

통상 12월말

주총소집
이사회 결의

2월

주주총회
배당금액 결정

3월

배당금 지급

4월



개선

先 배당액, 後 배당 기준일 확정

배당여부, 배당금을 알고 주식거래

주총소집
이사회 결의

2월

주주총회
배당금액 결정

3월

배당기준일
(배당 주주확정)

4월초

배당금 지급

4월말

✓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배당절차 개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1) 매매제도 개선

매매거래 제도를 개선하여 선진거래소 수준의 거래 편의 제공

- 선진시장 수준으로 접속 속도를 향상시키고 주문 유형도 다변화하여, 외국인 투자 유도

현황

- 해외거래소는 오래전부터 접속속도 향상 및 다양한 주문수요 충족을 위해 고객 서버를 거래소내 데이터센터에 직접 위치하는 Co-Location 서비스와 Mid-point* 주문을 제공
- * 정규시장의 최우선매도/매수호가의 중간값(Mid-point)으로 체결하는 새로운 호가유형
- KRX의 경우 최신의 초고속 매매 및 정보 분배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나, 투자자의 알고리즘 거래 증가, 다양한 주문유형 수요를 충족하는 서비스*는 미흡

* DMA, Co-Location, 주문유형 다양화 등

서비스		KRX	SGX	JPX	Nasdaq	DB	LSEG
Co-Location		X	O	O	O	O	O
DMA	Traditional	O	O	O	O	O	O
	Sponsored	X	O	X	O	O	O
주문유형 다양화		△	O	O	O	O	O

추진 방향

- 선진시장 시장제도를 벤치마크하여, 우리 시장에 맞는 다양한 주문유형 도입방안 검토

2) 파생제도 등 선진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제도 및 인프라 선진화 필요

- 국제정합성이 떨어지는 제도는 궁극적으로 한국 증시의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

현황

- 해외 선진시장의 경우 파생제도, 청산인프라 등 측면에서 지속적 변화 노력을 경주

※ [파생제도] 선진 시장은 증권사가 투자자 지식, 경험, 재정상황, 투자목적 등 고려, 투자적격성 판단
- 투자가능 범위, 위탁증거금 수준 등을 투자자 별 차등 설정

※ [청산인프라] 해외 CCP의 경우 다양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서비스 제공

해외 CCP별 장외파생상품 청산 현황

CCP	LCH(英)	CME(美)	Eurex(獨)	JSCC(日)	HKEX(홍콩)	KRX(韓)
상품유형	11 (금리8/FX3)	4 (IRS/NDS/NDF/CSF)	6 (금리5/NDF)	2 (IRS/CDS)	4 (IRS/NDF/CCS/DFX)	1 (IRS)
상품 수	134	55	62	11	22	2

- 반면, 국내 시장은 글로벌 환경과 다소 차이가 있고, 후발 주자로 대응하는 측면
 - [파생제도] 일률적인 위험관리 제도로 선진시장 대비 투자자 보호에 취약
 - [청산인프라] 장외파생 청산대상 상품유형이 주요 글로벌 CCP에 비해 부족

2) 파생제도 등 선진화

추진 방향

파생제도 선진화

투자자 맞춤형 보호체계
도입 검토



청산제도 선진화

장외파생상품 청산 확대
검토

- 파생상품시장 투자자 맞춤형 보호체계 도입 검토

- 투자자 위험관리 제도를 투자자 맞춤형 보호체계로 전환 추진 검토

- 파생상품투자자위험관리 기준(금투협 마련)을 바탕으로 증권사 위험관리부서의 독립적 심사를 거쳐 자체 관리기준을 수립
- 증권사가 투자자 정보파악 후 투자자별 등급을 부여하고, 기본예탁금 수준, 사전교육 내용, 모의거래 시간, 거래가능상품 등 차등 설정
- 결제불이행, 증거금 미예탁 등 사례 또는 우려가 있는 신용 등급이 낮은 투자자 정보를 공유하여 무분별한 투자자에 대한 위험 관리 강화

- 장외파생상품 청산 대상 확대 검토(→ 금리, 통화 상품 등 상품 群으로까지 확대 검토)

금리상품군

원화IRS 만기확대(20→30년)·명세 다양화, KOFR 및 SOFR OIS 신규 청산 추진

통화상품군

통화스왑(CRS), 차액결제선물환(NDF) 등 후보군 검토

기타상품군

국채 및 RP 등 장외거래의 CCP청산 가능성 및 필요성 검토

2023년부터 ATS 출범 가시화 등 자본시장 경쟁환경 급변

거래소-ATS간 주식거래 투자 유치를 위한 경쟁 불가피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시장 간 국경 없는 경쟁도 더욱 심화 양상

글로벌거래소 간 유동성 흡수 및 외연 확장 경쟁 본격화



글로벌허브 도약을
통하여 자본시장
경쟁 우위 확보



투자자보호, 안정적
시장운영, 시장감시 등
거래소 본연
기능에는 충실



자본시장 경쟁력
확보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 및
실물경제 성장 지원

감사합니다

